

# 사퇴 압박 광주시 산하 기관장 확대간부회의 불참 ‘단체항명’?

### 오주·이윤자·유동국 등 5명 감사실, 사유 조사후 조치키로

운장현 광주시장이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이 대거 불참해 논란이다. 특히 불참자 모두가 민선 5기 때 임명된 데다 일부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이 드러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기관장들로 ‘단체항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청 실·국장과 5개 부구청장,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확대 간부회의는 매월 한차례 열리며 대상자(58명)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오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정철웅 기후변화대응센터장, 김재규 광주영어방송 사장 등 5명은 불참했다. 이들을 대신해 정책기획담당장, 사무총장, 교수부장 등이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 기관장들은 회의 전 기존 관례를 깨고 불참 사유조사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결석을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불참 기관장들은 민선 5기 때 채

용됐으며, 일부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민선 6기 들어 윤 시장이 주재한 대부분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항명’ 수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감사관실은 회의 불참자에 대해 경위조사에 착수했으며, 불참 이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불참자들은 안과치료, 현장점검, 외국 출장 후 피로 등을 불참 이유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운장현 시장도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 “보고자 중 잘 모르는 얼굴이 있다. 기관장을 대신해 참석한 사유와 기관장의 불참 사유를 밝히고 보고해 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도 불참 기관장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한 달에 한번 주재하는 확대간부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별다른 사유 통보도 없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회의불참 기관장이 속한 일부 조직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여 이미 그만 둔 계약직 간부에게도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강도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가 29일 순천시 연향동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개청식에는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과 조중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개청 ... 공식 업무 시작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20일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으로, 동부지역 본부는 순천과 함께 여수·광양·보성 등 동부권 주민들의 민원 처리는 물론 환경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실질적인 제2청사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오후 개청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명현관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순천대 총장, 동부권 시장군수, 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과 3담당 17명의 과단위(4급) 동부출장소를 1국 3과 11담당 56명의 국단위(3급)로 확대한 조직으로, 전남도는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내 동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전남의 상생과 화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지역본부 관리 지역은 순천시를 비롯해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곡성군 등 동부권 7개 시·군으로 전남도 면적의 35%, 전체 인구(194만여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환경 안전관리 등 환경업무 수요를 주 업무로 하고 동부권 주민 소통과 도정 및 자체홍보, 남악 도청을 가지 않고도 민원을 윈스 톨 처리하는 종합민원실 성격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8월 기구 개편을 통해 동부지역 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승격하고, 출장소 시절 사용했던 순천 연향동의 광주지방조달청 순천사무소 건물을 사들여 각종 회의실과 무인민원발급기, 현금입출입기, 냉장고, 음료수대 등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배려한 편의시설을 대거 설치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세풍산단 3775억 금융조달 조건 관심

### 광양만청, 미래에셋증권·IBK 기업은행 등과 이달말 협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풍일반산업단지의 조성비 가운데 3775억원을 금융조달(PF, Project Financing)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인데다 과거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동함평산업단지 등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중개업체 등에게 높은 금리는 물론 자문료,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0일 광양만청에 따르면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비 5219억원의 3분의2가 넘는 3775억원을 금융조달하기로 하고 이달 말 협약을 체결한다. 3775억원 가운데 2225억원은 재무출자자인 미래에셋증권(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IBK 기업은행과 미래에셋생명에서 각각 850억원, 500억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2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광양만청의 투자유치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중이다.

현재 금리 등 구체적인 조달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초 6.5~7.5%로 예상됐던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 속에 광양만청은 5~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미래산단 조성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자문료나 수수료 없

이 순수하게 금리만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444억원은 국비 476억원, 일부 선분양대금, 공사비(225억원), 포스코건설(20%)·미래에셋증권(20%)·한국토지신탁(20%)·KB부동산신탁(20%)·광양만청(20%) 등의 자본 등이다.

광양만청은 세풍산단이 사업자 재지정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재개된 만큼 이후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 물건 감정평가 실시, 토지 및 지장물권 소유자 보상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하는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융조달 협상과정이나 조건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추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이 사업 성공의 핵심조건인 만큼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3.0㎢ 규모의 세풍산단은 오는 2019년까지 5219억원이 투입되며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형 소재산업, R&D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지방정가

#### 김보현 ‘정책 이력제’ 시행 촉구

광주시의회 김보현(새정치·서구2) 의원은 20일 “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누구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정책이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은방 ‘진로교육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이은방(새정치·북구 6) 의원이 발

의한 ‘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에 진로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조세철 “녹색건축물 활성화”

광주시의회 조세철(새정치·동구 2) 의원은 2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환경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에는 녹색건축물 본 인증과 예

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7개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조례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정책을 수립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심재섭, 예산확보 쟁결음

심재섭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북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북구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심 의장을 포함한 20명의 북구의원들과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북구 시의원들은 ▲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등 40여개의 각종 북구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2014 우리지역 명산 ‘무등산의 사계숲 바로알기’

- 선우학교·각화중학교와 함께하는 숲길탐방**  
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장소 | 무등산 일원
- 무등산 숲 문화제**  
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장소 | 충효동 왕버들 특설무대

**주최** 사단법인 광주학교  
**주관** 사단법인 광주학교 · 광주일보사 · 에너빌  
**후원** 복권위원회 · 산림청 · 녹색사업단  
**문의** 062.385-1417

\*본 사업은 산림청·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의 지원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